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3문) :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태환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사도신경의 삼위일체적 구조

- 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Credo in Deum)
- ②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Et (credo) in Iesum Christum)
- ③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Credo in Spiritum Sanctum)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바른 신앙고백

- ① 잘못된 이해: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

⇒ 두 가지 문제 1) 성부와 성자는 높이고 성령은 무시하는 입장
2)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입장

- ② 바른 신앙고백: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3위이시며 성부 및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구별되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며 본질이 동일하시다.

1)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

고전2:11-12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행5:3-4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임을 증거함

2)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 위의 두 구절을 근거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온다고 증거하고 있다.

3) 성령님의 구별되심

눅3: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

눅12: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행16: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4)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동등하심과 본질적 동일성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과 함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의 명령과 뜻과 권위에 의해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령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① 보혜사로 이 땅에 내려오심

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보혜사로 계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을 약속해주심

②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

요16:13-14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 예수님은 잡하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주셨다. 곧 장래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③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심

고전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④ 은혜로 주어지는 분이심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라는 고백은 수동태의 문장
⇒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임을 고백한다.
1)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2)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⑤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시는 분

“나에게도 임하셔서”라는 고백은 교회의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말이다.
⇒ 행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는 모여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이다.
고전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전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12: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다.

⑥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

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4.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

엡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②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함.

눅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③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성령님께 위로를 얻어야 함.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